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 경제적 자원과 돌봄

Resource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 Financial Resources and Caregiving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석사·선임팀장 이윤정**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고선강***

Seongdong-Gu Family Support Center

Senior Manager : Lee, Yun-Jeong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 : Koh, Sun-Ka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 of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analyzing the influencing factors in such transfers.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financial transfers and economic resources on financial transfers and grandchild caregiving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The sample of 3719 mothers with adult children was extracted from the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Mothers'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financial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Mothers who have jobs and spouses are more likely to provide economic resource to their adult children than those who don't have. In terms of receiving economic resources from adult children, statistically meaningful factors are mothers' age, labor market participation,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household asset, and childr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Especially,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mothers and adult children is statistically powerful factor in financial transfers and caregiving.

▲주요어(Key Words) : 세대 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 경제적 자원이전(financial resource transfer),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 돌봄 제공(caregiving), 부모 성인자녀 관계(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이윤정 (E-mail : starruby@naver.com)

*** 교신저자 : 고선강 (E-mail : skoh@sungshi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관점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를 실천하는 미덕으로 간주되었고 자녀가 노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가족 부양체계가 확고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약화와 핵가족화 및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은 세대간 관계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통계청(2008, 2010)의 2008년, 201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88.8%가 자녀의 혼수나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결혼비용은 부모의 몫이라고 대답했다. 71.2%는 취업을 하지 못한 성인 자녀의 용돈도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 부양을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2002년 70.7%에서 2008년에는 40.7%, 2010년에 36.0%로 떨어져 부양의식은 약화된 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당연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령이 50대인 부모들의 부양책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학 졸업 때까지' 부모가 부양책임을 갖는다는 응답이 40.5%였고, '혼인할 때까지' 부양책임을 갖는다는 응답도 32.9%였다.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언제(까지)라도'라는 대답도 5.6%나 되어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 등, 2009).

그러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모 세대에 필요한 노후준비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반해 노인 부양의 책임을 지게 될 청·장년층의 생산가능 인구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노인부양 비용은 증가하였다.

여기에 중년기 여성에게는 부모 역할 이상의 것이 기대되는데 그것은 조모로서의 역할이다. 기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태어날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맞벌이와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하 아동 83.9%의 주양육자는 아동의 어머니였고 다음으로 조부모가 10.2%로 많았다. 특히,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비율이 20.8%로 높게 나타났다(서문희, 2005).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손자녀 양육을 조부모 중 주로 조모가 담당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배지희 등, 2007; 배진희, 2007; 백경숙·김영란, 2006; 심영숙·서영미, 1999).

이러한 추세는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자원이전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과거에는 성장한 자녀를 가진 부모 세

대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의 수혜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자원 제공자 역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김지경, 2008). 자원 이전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으며, 단지 부모부양을 목적으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일방적인 자원 이전이 아니라 부모 자녀간의 양방향적인 자원이 교류되고 있다(김지경, 2004).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원 교류는 유산 상속과 같은 특정한 계기의 자원이전 보다 일상적인 자원 이전을 통해 잘 관찰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다양한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어 여러 종류의 자원 교류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일상적인 자원이전을 분석함에 있어 돌봄 제공을 세대 간 자원이전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남성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자원이전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남성이 가정의 주소득원이고 경제적 자원이전의 주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 2009)의 조사에 따르면, 부인이 가정의 일상 생활비 지출을 결정하는 경우가 67.4%,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26.6%로 일상적 경제적 의사 결정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일상적 경제적 자원이전과 돌봄 서비스 제공의 주체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특성이 자녀와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이전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이전 및 손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를 중심으로 미혼 성인 자녀와 기혼 성인 자녀간의 자원이전 행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자원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자원이전 관련 이론

부모와 성인 자녀의 자원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 이타주의론(Altruism Theory)과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을 소개한다. 이 이론들은 자원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어떠한 동기로 수혜자에게 자원을 이전하는가를 설명한다.

1) 이타주의론

이타주의론은 Becker(1991)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된 이론이다. 이타주의론에서 '이타적'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타인의 안녕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자신의 안녕감 수준이 높아지면 '이타적'

이라고 본다(고선강, 2005, 재인용).

Becker(1991)의 설명에 의하면 한 가족 안에는 이타적인 가장이 있고 이기적인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 가족들의 안녕감 수준은 이타적인 가장의 안녕감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가족 구성원들이 즐겁게 잘 살아야만 이타적 가장도 즐겁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Becker는 경제 효용 함수로 이 관계를 표현했는데 이타적 가장의 효용 함수를 결정짓는 요소에 가족 구성원의 효용 함수가 포함된다. 오직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만 효용이 증대된다고 가정하면, 이타적인 가장의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가족 구성원들의 안녕감 증진과 가장의 만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선강, 2005).

이타주의론은 부모의 행동을 설명할 때 적용될 수 있다. 자녀의 안녕감이 부모 자신의 안녕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통하여 자녀의 안녕감 증진을 도모한다. McGarry와 Schoeni(1995)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나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이전을 하는 경우 모두에서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이 모두 경제적 교류에 있어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 간 경제적 자원이전이 이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한지수와 홍공숙(2007)은 시간 자원이전에도 이타주의론을 적용하였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돌봄 시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안녕감이 높아지면 자녀의 안녕감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자녀가 여가 시간을 줄이고,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시간 사용이 부모의 효용을 높이고, 동시에 자녀 자신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며, 이는 이타주의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손자녀 돌봄과 같은 시간 자원의 제공도 이타주의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치매 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를 한 고선강(2008)도 이타주의론을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로부터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으로 확장시켜 고려하였다. 성인 자녀의 효용 함수에 노부모의 효용 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가 일정 기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해야 자녀도 행복해 진다는 것이다. 자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고자 자원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고선강(2008)은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자원은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돌봄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 교환이론

교환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손실이 큰 행동은 피하고 투자한 이상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한다(김경신, 1993). Cox(1987)는 교환적 분배 기준을 사적 이전 소득을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혜자들의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전 받는 확률과 액수는 증가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 기대에 근거하여 자원이전 행동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소득 이전의 동기가 된다(Cox & Rank, 1992). 상호호혜성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다. 돌아올 보상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장기적인 보상일 수도 있다(Sabatelli & Shehan, 1993; 고선강, 2005, 재인용). 따라서 교환이론은 부모나 자녀에게 현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에 다시 돌려받을 자원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형태의 자원 교류에서만 교환이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Bernheim 등(1985)은 여러 명의 성장한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부모가 물려줄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연구를 통하여 부모가 자신에게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는 자녀에게 보상의 차원으로 자산을 더 물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선강, 2008, 재인용).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자원을 얻으려고 기대하거나 부모가 제공하는 아이 돌보거나 집 봐주기, 혹은 가사 일을 도와주는 것 같은 도구적 자원의 획득을 위하여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부모도 자녀가 경제력을 가질 때까지 자녀의 교육이나 사업 등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ee et al., 1994; 김지경 · 송현주, 2008, 재인용).

2. 선행 연구 고찰

1)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은 세대간 자원이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만드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 연구들에서는 수혜자 뿐 아니라 제공자의 성도 자원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할 경우 여성인 어머니일 때 이전 가능성과 규모가 커진다고 하였으며, Cox(1987)의 연구에서도 자원의 수혜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소득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지경과 송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아들일 경우 사적 소득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전 금액도 자녀가 아들일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높고 자녀의 연령은 낮을수록 소득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Cox, 1987; McGarry & Schoeni, 1997). 부모가 수혜자일 경우 연령이 높으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윤선영, 2008; Cox, 1987; Secondi, 1997). 반면 김희삼(2008)은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은 75세를 전후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대다수의 연구(김순미·박미려, 2008; 진재문, 1999; Cox, 1987)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Cox(1987)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으면 자녀에게 자원이전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도 역시 교육 수준이 높으면 부모에게 자원이전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재문(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 모두 자원 제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의 측면에서 본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 상태는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경제적 자원이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선행 연구(김지경·송은경, 2004; 손병돈, 1998)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 활동을 할 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고선강(2005)의 연구에서는 취업을 한 성인 자녀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자원을 이전 받는 수혜자의 경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러 연구들(김순미·박미려, 2008; 김희삼, 2008; 손병돈, 1999)에서 부모가 배우자가 없을 때 자녀로부터 자원을 제공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돈(1999)의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소득 이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서 부모가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일 경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사별해 혼자 사는 경우 자식으로부터 소득 이전액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적 이전의 이타적 동기를 확인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의 건강 상태는 부모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진재문(1999)은 부

모의 건강 상태와 이전 규모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에게 이전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김순미와 박미려(2008)는 노령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욕구가 큰 부모일수록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식으로부터의 소득 이전의 액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 손자녀가 있을 때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손자녀의 존재가 부모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지경·송현주, 2008; 김희삼, 2008). 윤선영(2008)은 노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사적 이전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적 이전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김지경과 송현주(2008)의 연구에서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부모간의 사적 소득이전 총액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전받는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 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삼(2008)은 자녀 가구의 가구원 수가 많으면 소득 이전 여력의 감소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줄어들지만 이 중 미성년 자녀 수가 많으면 사적 이전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부모 자녀간 동거 여부가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한 선행 연구는 소수였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을 연구하였다(김지경·송은경, 2004; 김지경·송현주, 2008; 문숙재·김지연, 2006; 한경혜·홍진국, 2000). 성지미와 차은영(2001)은 세대간 사적 자원 이전의 형태를 이전 소득으로서의 금전, 시간, 공간 등 세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동거할 경우 동일 공간을 공유하며 금전과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보다 함께 사는 자녀와 경제적 자원이전과 돌봄의 제공이 더 활발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 재정 관련 변수

가계 소득과 자산 관련 변수는 자원이전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제공자의 소득은 자원의 제공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즉, 제공자의 자산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혜자의 소득과 자산은 자원이전의 동기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 수혜자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이타주의적 관점에서는 자원 이전의 양이 감소하게 되며, 교환주의적 관점에서는 수혜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소득 이전의 가능성은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자녀로부터 소득 이전을 받을 확률은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산과 소득이 낮은 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돈(1998)은 경제적 중간 계층이 경제적 자원이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최상 계층, 최하 계층의 부모 순으로 경제적 이전을 받는다고 하였다. 고선강(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자녀로부터 금융 자산의 이전을 받을 확률이 낮았다.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을 상실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 받을 가능성이 컸으며,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이 자녀가 소득 이전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타적 동기에서 자원을 이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 분석에 사용될 변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재정적 변인(가계 소득, 가계 자산)과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주관적인 건강 상태),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취업 상태(미혼 성인 자녀일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 유무(기혼 성인 자녀일 경우)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동거 여부도 자원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 실태와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교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1]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2]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3] 어머니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자료 및 측정 도구의 구성

1) 자료 및 표본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의 자원이전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and Families: 이하 KLoWF)」이다. KLoWF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이 가구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해당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조사로 일년에 일 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에 조사된, 1차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출된 9,068가구에 거주하는 9,997명이 원표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를 통합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구당 한명을 추출하여 3,719명을 연구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어머니가 미혼인 한 가구를 제외한 3,718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3개의 하위표본이 사용되었다. 첫째, 어머니와 미혼 성인자녀 간의 자원이전 분석을 위하여 미혼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 2,894명이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기혼 성인자녀를 둔 어머니 2,052명이 기혼 성인자녀와의 자원이전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2,052명의 기혼 자녀 중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1,042명을 선정하여 어머니의 기혼 성인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의, 측정 도구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및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종속 변수는 어머니와 자녀간 경제적 자원이전 유무와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 여부이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4가지로 측정되었다. 첫째, 어머니와 배우자(아버지)가 미혼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였는가,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혼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는가,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혼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였는가,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혼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는가이다.

돌봄 서비스 제공은 어머니와 배우자(아버지)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서비스를 측정하였다. 즉 기혼자녀 중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례만 선택하여 어머니가 손자녀를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 경우를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어머니의 특성과 성인 자녀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로는 연령,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 가계 소득, 가계 자산이다. 성인 자녀와 관련된 변수로는 성인자

녀의 성, 연령, 미혼 성인자녀의 취업여부, 기혼자녀의 만 6세 이하의 자녀 유무를 선택하였다.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과 주요 변수에 대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측정 방법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변 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종속 변수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 유무	0=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1=경제적 도움을 준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여부	0=일주일에 한 시간이상 돌보지 않는다 1=일주일에 한 시간이상 돌본다					
	성인 자녀에게 받는 경제적 자원 유무	0=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1=경제적 도움을 준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빈도	비율				
연 령	50세 미만	787	27.1%				
	50~59세	1571	54.2%				
	60세 이상	541	18.7%				
교육 수준	무학, 초등학교	1048	36.2%				
	중학교	770	26.6%				
	고등학교 이상	1078	37.2%				
취업 상태	취업	1545	53.3%				
	비취업	1354	46.7%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450	15.5%				
	유배우자	2448	84.5%				
건강 상태	건강이 아주 나쁜 편이다 별로 건강하지 않다	788	27.2%				
	보통이다	649	22.4%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다	1462	50.4%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949	32.7%				
	동거	1950	67.3%				
독립 변수	가계 소득 (2007년 1월~6월) 단위 : 만원	하=0~300 (20.6%)	426	15.3%			
	중=363~1858 (60.0%)	1729	61.9%				
	상=1860~44200 (19.8%)	638	22.8%				
가계 자산 단위 : 만원 (부동산 자산+유형 자산+금융 자산)-가구부채	하=(-)19700~3987 (20.0%)	460	18.5%				
	중=3989~23998 (60.0%)	1492	60.1%				
	상=24000~270050 (20.0%)	532	21.4%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미혼 자녀	빈도	백분율	기혼 자녀	빈도	백분율
성	여	1154	39.8%		912	44.4%	
	남	1744	60.2%		1140	55.6%	
연령	20세~24세	958	33.1%	21세~29세	420	20.5%	
	25세~29세	1152	39.8%	30세~34세	832	40.6%	
	30세~49세	788	27.2%	35세~57세	795	38.8%	
취업 상태	비취업	1324	45.7%				
	취업	1575	54.3%				
만 6세 이하자녀유무	무				1006	49.1%	
	유				1042	50.9%	

3) 통계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Version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의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의 자원이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포, 백분율,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2>의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원이전 유무를 종속 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교류 실태

어머니가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 여부에 따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의 여부에 따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비율과 받지 않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지 않을 때,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는 19.4%

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916명 중 자녀로부터 자원이전을 받는 비율은 8.8%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기혼 성인 자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 실태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비율이 18.4%였다. 반면 어머니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은 비율은 58.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미혼자녀와 기혼자녀와의 경제적 자원이전 실태를 비교해 보면, 미혼자녀 보다는 기혼자녀와의 경제적 상호교류가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이전과 돌봄 서비스 제공 실태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비율은 5.7%였으나, 어머니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비율은 24.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기혼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기혼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가 만 6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와 돌보는 경우의 비율이 각각 10.1%와 11.3%로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경제적 자원 교류

		미혼 성인 자녀와 어머니가 주고 받는 경제적 자원						χ ²
		미혼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n	%	n	%	n	%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n=2894)	이전하지 않는다	1595	80.6	383	19.4	1978	100	51.469***
	이전 한다	835	91.2	81	8.8	916	100	
전체		2430		464		2894		
		기혼 성인 자녀와 어머니가 주고 받는 경제적 자원						χ ²
		기혼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n	%	n	%	n	%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n=2052)	이전하지 않는다	1512	81.6	341	18.4	1853	100	165.170***
	이전 한다	83	41.7	116	58.3	199	100	
전체		1595		457		2052		

***p<.001

<표 3> 어머니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교류 (단위: n, %)

	기혼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χ ²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n	%	n	%	n	%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n=1042)	이전하지 않는다	741	94.3	45	5.7	786	100	74.124 ***
	이전 한다	193	75.4	63	24.6	256	100	
	전체	934		108		1042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n=1042)	돌보지 않는다	753	89.9	85	10.1	838	100	.226
	돌본다	181	88.7	23	11.3	204	100	
	전체	934		108		1042		

***p<.001

<표 4>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자원이전 (N=2894)			
독립 변수 (준거집단)	범주	B	S.E.	odds Ratio	
어머니	연령	.026	.014	1.026	
	교육 수준 (무학/초등)	중등	-.132	.143	.877
		고등	.048	.145	1.049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576***	.105	1.779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677***	.153	1.968
	건강 상태		.109*	.053	1.115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095	.121	.910
		하	-.699***	.178	.497
		상	-.022	.128	.978
	가계 소득 (중)	무응답	-.136	.273	.873
하		-.504**	.157	.604	
상		.138	.136	1.149	
가계 자산 (중)	무응답	-.120	.158	.887	
	하	-.504**	.157	.604	
	상	.138	.136	1.149	
미혼 성인 자녀	성 (여)	남	-.226*	.103	.797
	연령		-.057**	.018	.945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2.731***	.127	.065
	상수		-.389	.685	.678
-2 log likelihood(fitted)			2530.219		
Model Chi-square			1089.641***		

*p<.05, **p<.01, ***p<.001

2.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들 중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및 건강 상태,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이, 미혼 성인 자녀와 관련된 변수는 성, 연령, 그리고 취업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에 비취업과 비교했을 때,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경향성이 약 1.8배 증가한다. 이는 김지경과 송은경(2004), 손병돈(1999)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 활동을 할 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있는 경우,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미혼 성인 자녀에게 자원을 이전할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은 금액이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하위 20%에 속하는 어머니일 경우 경제적 자원이전 경향성이 낮았으며, 가계 자산의 경우에도 가계 자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어머니의 경우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혼 성인 자녀와 관련된 변수는 성, 연령, 취업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 경우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경향성이 딸과 비교하여 더 낮았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이전을 받을 경향이 낮았으며, 자녀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원이전 받을 확률이 낮았다. 이는 김지경과 송은경(2004), 손병돈(1999)이 보고한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자인 경우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가계 소득, 가계 자산이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무학이나

초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에 비하여 교육 수준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졌을 경우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낮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이전을 하는 범주에 속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김순미·박미려, 2008; 진재문, 1999; Cox, 1987)가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표 5>의 분석결과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기혼자녀로 분석 표본을 한정시킨 것과 어머니가 자원이전의 주체라는 것에 일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취업을 한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약 2.9배 높았고, 어머니에게 남편이 있는 경우 무배우자 집단보다 기혼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와 비교하여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가능성이 2.8배 이상 높았다. 이는 부모와 기혼자녀가 동거할 경우 동일 공간을 공유하며 금전과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성지미·차은영, 2001). 가계 소득에 있어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에 비하여 하위 20%에 속하는 어머니가 경제적 자원이전 경향성이 낮았으며, 가계 자산도 하위 20%에 속하는 어머니의

<표 5> 어머니의 기혼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자원이전 (N=2052)				
독립 변수 (준거집단)	범주	B	S.E.	odds ratio		
어머니	연령	.047	.025	1.048		
	교육 수준 (무학/초등)	중등	-.637**	.220	.529	
		고등	-.860**	.290	.423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1.066***	.183	2.903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778**	.250	2.177	
	건강 상태		-.091	.077	.913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1.039***	.287	2.826	
		하	-.827***	.226	.437	
		가계 소득 (중)	상	.231	.244	1.260
			무응답	.330	.593	1.390
가계 자산 (중)	하	-.590*	.256	.554		
	상	.117	.220	1.124		
기혼 성인 자녀	성 (여)	남	-.261	.160	.770	
		연령	-.025	.024	.976	
	만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무)	유	-.002	.162	.998	
	상수		-4.593***	1.223	.010	
-2 log likelihood(fitted)			1158.195			
Model Chi-square			146.444***			

*p<.05, **p<.01, ***p<.001

경우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와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았다.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은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보다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았다.

미혼 성인 자녀와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비교해 보면,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성인 자녀의 성이다. 반대로,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는 유의하였으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이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 자녀와의 동거 여부로 나타났다.

- 2)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미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는 연령,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 여부,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으로 분석되었다. 미혼 성인 자녀와 관련된 변수는 취업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Cox(1987)의 연령이 높으면 자녀로부터 소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와 McGarry와 Schoeni(1995)의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취업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는 경향성이 낮았으며, 김지경과 송은경(2004), 손병돈(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무배우자보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손병돈(1999), 김순미와 박미려(2008), 김희삼(2008)에서 부모가 배우자가 없을 때 자녀로부터 자원이전을 제공받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건강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자원을 받을 경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노령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욕구가 큰 부모일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부

<표 6> 미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자원이전 (N=2894)			
독립 변수 (준거집단)	범주	B	S.E.	odds Ratio	
어머니	연령	.044**	.014	1.045	
	교육 수준 (무학/초)	중등	-.082	.141	.921
		고등	-.149	.159	.861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337**	.118	.714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506***	.142	.603
	건강 상태		-.187**	.057	.829
	자녀와의 동거 (비동거)	동거	.385**	.122	1.470
		하	-.334*	.159	.709
	가계 소득 (중)	상	-.243	.160	.785
		무응답	-.065	.352	.938
		하	-.244	.161	.783
	가계 자산 (중)	상	-.355*	.171	.701
무응답		-.340	.186	.712	
하		-.244	.161	.783	
미혼 성인 자녀	성 (여)	남	-.101	.119	.904
	연령		.014	.017	1.014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2.419***	.194	11.237
	상수	-4.965***	.724	.007	
-2 log likelihood(fitted)			2069.123		
Model Chi-square			488.986***		

*p<.05, **p<.01, ***p<.001

모와 동거하는 미혼 성인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성인 자녀보다 약 1.4배 정도 높게 자원이전을 제공할 경향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지미와 차은영(2001)의 동거할 경우 동일 공간을 공유하며 금전과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은 중위 60% 그룹과 비교하여 소득 하위 20%, 자산 상위 20% 그룹이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이 낮은 어머니가 중간 수준의 어머니보다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확률이 낮은 것은 이타주의론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결과이다. 그러나 자원제공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 변수들이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타주의론에 배치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동시에 가계 자산의 경우 어머니의 가계 자산 수준이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 중위 60%와 비교하여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는 일정 부분 이타주의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미혼 성인 자녀의 특성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의 취업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을 한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취업하지 않은 미혼 성인 자녀와 비

교하여 어머니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경향성이 약 11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표 7> 참조)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는 연령,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가계 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혼 성인 자녀와 관련된 변수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높았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기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어머니가 자원을 제공하는 확률이 높았던 것과 동시에 자원을 제공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 변수에 있어서는 가계 자산이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과 비교하여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성인 자녀의 특성 중 만 6세 이하 자녀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교하여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약 1.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자원이전 (N=2052)			
독립 변수 (준거집단)	범주	B	S.E.	odds Ratio	
어머니	연령	.066***	.018	1.068	
	교육 수준 (무학/초등)	중등	-.141	.148	.869
		고등	.043	.172	1.044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039	.117	1.040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251	.137	.778
	건강 상태		-.266***	.056	.766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627**	.219	1.872
		하	.159	.129	1.172
	가계 소득 (중)	상	-.220	.208	.802
		무응답	.288	.362	1.334
		하	-.303	.156	.739
	가계 자산 (중)	상	-.371*	.187	.690
무응답		-.285	.183	.752	
기혼 성인 자녀	성 (여)	남	-.195	.112	.823
	연령		.024	.017	1.025
	만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무)	유	.466***	.117	1.593
	상수		-5.079***	.906	.006
-2 log likelihood(fitted)			2036.346		
Model Chi-square			134.547***		

*p<.05, **p<.01, ***p<.001

<표 8> 어머니의 기혼 자녀(6세 이하 자녀가 있는)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 변수 (준거집단)	범주	경제적 자원이전 (n=1042)			돌봄 서비스 제공 (n=1042)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어머니	연령	.027	.033	1.027	-.022	.026	.978		
	교육 수준 (무학/초)	중등	-.147	.269	.863	.312	.216	1.366	
		고등	-.327	.373	.721	-.120	.268	.887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1.391***	.269	4.018	-1.135***	.199	.321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593	.338	1.810	-.028	.244	.972	
	건강 상태		-.112	.109	.894	.136	.093	1.145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1.160**	.380	3.189	4.053***	.436	57.571	
		하	-.811*	.327	.444	-.066	.226	.936	
	가계 소득 (중)	상	.173	.323	1.189	-.091	.309	.913	
		무응답	-17.347	7829.086	.000	-.379	.631	.685	
	가계 자산 (중)	하	-.729	.400	.482	.172	.275	1.188	
		상	.159	.283	1.173	.215	.261	1.240	
		무응답	-2.025**	.733	.132	.215	.298	1.240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자녀	성 (여)	남	-.124	.220	.883	-.110	.188	.896
		연령		.020	.036	1.021	.004	.031	1.004
	상수		-5.103**	1.718	.006	-5.59	1.370	.572	
		-2 log likelihood(fitted)		606.847	822.449				
		Model Chi-square		87.173***	226061***				

*p<.05, **p<.01, ***p<.001

어머니가 성인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미혼 자녀와 기혼 자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은 어머니의 연령,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 여부, 가계 자산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높았다. 가계 자산은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보다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어머니의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가계 소득이었다. 어머니가 취업을 했거나, 배우자가 있고, 가계 소득이 하위 20% 속하는 경우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기혼 자녀(6세 이하 자녀가 있는)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머니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과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여부와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어머니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취업 상태, 자녀와의 동거 여부, 가계 소득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어머니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경제적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높았다. 가계 소득은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에 비하여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자원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돌봄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취업 상태와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만 6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만 6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봄 경향성이 약 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이전 및 손자녀 돌보기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차년도(2007년)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이전 결정에 무엇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 행동의 이타적인 동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의 경제적 자원 이전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은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에서 이타적 동기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어머니의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았다. 취업한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녀에게 제공할 경제적 자원의 확보가 비취업상태의 어머니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비취업 어머니의 경우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확률이 높았는데, 취업한 어머니와 비교하여 비취업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보유 수준이 낮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여 어머니의 경제적 부족 부분을 채워주는 것은 이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비취업자인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의 확률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도 이타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경향성이, 무배우자일 때에는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원이전에 있어 이타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타적 동기가 작용하는 또 하나의 특성은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 상태이다. 어머니 스스로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할수록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았으며,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타적 동기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재정 관련 변수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가계 소득

과 가계 자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과 비교하여 성인 자녀와 경제적 자원 교류를 할 경향성이 낮았다. 가계 소득이 낮고 가계 자산이 적은 경우, 자녀에게 이전할 경제적 자원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낮은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때 가계 자산이 상위 20%에 속하는 어머니가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와 비교하여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타주의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가계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경우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와 비교하여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가계 소득이 낮은 경우에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은 이타주의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기혼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가계 소득이 하위 20%인 경우 중위 60%와 비교하여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가계 소득이 하위그룹에 속하는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확률이 낮은 것은 미혼 자녀의 소득 등 경제적 자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분석모형에 포함될 때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부모 자녀간의 동거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의 경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와 성인 자녀의 동거가 단지 공간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과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자녀와 어머니가 동거할 경우 어머니의 기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 돌봄 서비스 제공의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활발한 것인지 자원을 더 많이 교류하고자 하는 요구에 의해서 동거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후의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 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원이전에 있어서 여성의 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려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남성 가구주를 경제적 자원이전의 주체로 파악하고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부모의 특성으로 대체하였다. 남성 가구주의 특성만을 분석모형에 투입한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의 취업 상태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비중 있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자원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수혜자인 동시에 제공자가 될 경우에 더 중요할 것이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세대간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할 때 가구주 뿐 아니라 다른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밝혔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 수혜자와 제공자 양측의 특성을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각각의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특히 자녀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원이전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교환이론과 이타주의론으로 자원이전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최근 일 년 동안 자원이전 실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자원이전 행동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큰 규모의 자원이전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패널자료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이전과 돌봄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원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대간 자원이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선행 연구에서는 가구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구의 대표적 특성으로 다루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여성이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가구주의 특성과 같이 자원이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후속 연구는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자원이전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선강(2002). 노부모의 금전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53-64.
-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구인회 · 손병돈(2005).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한국노년학**, 25(4), 35-52.
- 김경신(1993). 가족학의 이론적 관점과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1(1), 137-151.
- 김순미 · 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김승권 · 김유경 · 조애저 · 김혜련 · 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김지경(2008).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 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지경 · 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지경 · 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김희삼(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71-130.
- 문숙재 · 김지연(2006). 소득계층에 따른 경제적 자원교류 결정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29-329.
- 배지희 · 노상경 · 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29, 67-94.
- 백경숙 · 김영란(2006). 손자녀 양육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109-128.
- 서문희(2005). 2004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성지미 · 차은영(2001). 한국노동패널 특집 :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노동경제논집**, 24(1), 97-124.
- 손병돈(1998). 가족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의 계층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11(1), 79-106.
- 손병돈(1999). 부모 부양의 동기와 재분배 효과 : 가족간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2), 59-78.
- 심영숙 · 서영미(1999).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돌보기 실태. **노인간호학회지**, 1(2), 203-212.
- 윤선영(2008).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진재문(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13(1), 167-199.
-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www.nso.go.kr
- 통계청(2008). 2008 사회조사 결과. www.nso.go.kr
- 통계청(2010). 2010 사회조사 결과. www.nso.go.kr
- 한경혜 · 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문화**, 12(2), 55-80.
- 한지수 · 홍공숙(2007).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자녀의 시장노동 참여 및 참여 시간 결정 요인: 기혼여성자녀와 노부모와의 시간자원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6), 61-75.

- Cox, 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
-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4), S184-S226.
- Secondi, G.(1997). Private monetary transfers in rural china: Are families altruistic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3(4), 487.

- 접수 일 : 2011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11년 07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08일